

SAFF
SEOUL ASIAN FINANCIAL FORUM

아시아경제

2020 서울아시아금융포럼 Seoul Asian Financial Forum 2020

포스트 코로나 금융시장 안정 방안

2020년 5월 20일(수) 09:00~15:00 |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PROGRAM BOOK

주최 아시아경제

후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KRX 한국거래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KSD 한국예탁결제원



2020 제9회 서울아시아금융포럼
Seoul Asian Financial Forum 2020

PROGRAM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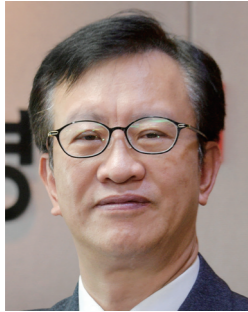
CONTENTS

개막사	4
세션 1_패널토론 코로나19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와 대응	5
세션 2 초불확실성 금융시장, 디지털 강화가 살길이다	9
세션 3 포스트 코로나 투자전략	45

PROGRAM

시 간	구 분	프로그램
09:00~09:10		오프닝
09:10~09:20	개막사	이의철 아시아경제 대표
	격려사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세션1_패널토론 코로나19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와 대응		
09:20~10:10	좌 장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패널토론	정중호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박의택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커버리지 부문대표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금융학과 교수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세션 2 초불확실성 금융시장, 디지털 강화가 살길이다		
10:10~10:40	디지털 금융 혁신	한동환 KB국민은행 디지털금융그룹 대표 겸 KB금융지주 디지털혁신총괄(CDIO)
10:40~11:10	오픈뱅킹 본격화	권영탁 핀크 대표
11:10~11:40	데이터 경제 활성화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
11:40~13:00		오찬
세션 3 포스트 코로나 투자전략		
13:00~13:30	글로벌위기 속 투자전략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13:30~14:00	자본시장과 빅데이터	이동렬 한국신용정보원 CTO
14:00~14:30	팬데믹시대 자산관리	정인영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

개막사



이의철 아시아경제 대표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제 대표이사 이의철입니다. 오늘 '2020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아시아금융포럼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금융시장 안정 방안>입니다.

올 초 갑작스럽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세계 경제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금융시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수의 경제 분석기관들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국경제에 주는 타격은 더욱 복잡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교역국가이기에 그렇습니다. 일부 한계 기업의 자금경색이 금융권의 부실채권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입니다. 한국 전쟁 종전 이후 70여년간 척박한 환경속에서 대한민국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기틀을 갖추고,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堂堂히 자리매김한,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의 역군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희망의 불씨입니다.

현재 우리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으며,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한 금융의 역할은 본연의 경쟁력 강화가 전제돼야 합니다. 디지털과 글로벌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는 금융의 미래를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바이오인증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금융업에 다양한 형태로 융합돼 혁신의 주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핀테크를 더욱 심화시켜 금융업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본시장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 거래가 일상화될 것이며, 로보어드바이저도 보편화될 전망입니다. 보험업은 사물인터넷(IoT)기술이 접목되면서 헬스케어 산업과도 융합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은 보험산업에 또 한번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금융업은 더 이상 내수 산업이 아닙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해외 점포가 벌어들인 순이익은 1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 점포 당기순이익은 1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0%나 늘었습니다. 금융투자업과 여신업 등 다른 업권에서도 활발한 해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며,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 공간이기도 합니다. 디지털과 글로벌에 미래가 있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금융과 자본시장의 융합이 일어나고 다른 한편으로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른바 '빅 블러' 시대를 헤쳐나갈 혁신 전략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 나아가 코로나사태 이후 글로벌 투자전략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경제가 준비한 이번 금융포럼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간의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금융산업의 혁신과 발전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1

패널토론

코로나19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와 대응

좌장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패널

정중호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박의택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커버리지 부문대표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금융학과 교수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패널토론



좌 장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 국제금융센터 원장국제금융센터 원장(2019~)
-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2017)
-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장(2015)
- 세계은행(World Bank) 시니어 스페셜리스트(2010)
- 제31회 행정고시 합격(1987)
-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1998)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1987)



패 널

정중호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본부장)(2019~)
-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분석실장(2017)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분석실장(2015)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산업연구실장(2013)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산업팀 연구위원(2008)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산업팀 수석연구원(2007)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2006)
- 프랑스 파리13대학 산업경제연구소(CREI) 객원연구원(2001)
- 고려대,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시간강사(1999)
- 고려대 경제연구소 산업경제실 특례연구원(1992)
- 고려대 경제학 학사, 석사, 박사



패 널

박의택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커버리지 부문대표

-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커버리지 부문대표
- 삼성전자
- 미국 듀크대학교 MBA 석사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SAFF
SEOUL ASIAN FINANCIAL FORUM

패널토론



패널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금융학과 교수

-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금융학과 교수(2016~)
- 대통령직속 한국지식재산위원회 활용분과위원(2016~)
- 한국외교부 재외동포과 정책자문위원(2017~)
-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2015~)
-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2008~2015)
- 현대자동차연구소 중국경제포럼 위원(2011~)
- 중국 청도시 및 부산시 금융자문관(2016~2018)
- 외교부 경제분과 정책자문위원(2014~2018)
- 한국예탁결제원 객원연구위원(2015~2017)
- 중국 연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993~2003)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재무론) 박사(2013)
- 중국 연변대학교 경제학과 법학(경제법) 석사(2001)
- 중국 길림화공대학교 화학공정학과 졸업(1993)



패널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 KB증권 리서치센터장(상무) (2020~)
-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2015~)
- KB증권 리서치센터 자산배분전략부 상무(수석전략가)(2018)
- 미래에셋대우 트레이딩부문 운용전략실장(2016)
-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자산분석실장(2013)
- 동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본부장(2010)
- KB증권(구.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채권분석팀장(2008)
- 삼성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Strategist 겸 펀드매니저(2005)
-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1999)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세션 2

초불확실성 금융시장, 디지털 강화가 살길이다

강연

| 디지털 금융 혁신

한동환 KB국민은행 디지털금융그룹 대표 겸 KB금융지주 디지털혁신총괄(CDIO)

| 오픈뱅킹 본격화

권영탁 핀크 대표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

강연 | 디지털 금융 혁신



한동환 KB국민은행 디지털금융그룹 대표 겸 KB금융지주 디지털혁신총괄(CDIO)

- KB국민은행 디지털금융그룹 대표 겸 KB금융지주 디지털혁신총괄(CDIO)
- KB금융지주 이사회사무국장
- KB국민은행 전략기획부장
- 미국 워싱턴대학교 대학원 MBA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사, 석사



디지털 금융 혁신

KB 금융그룹 | 국민은행
금융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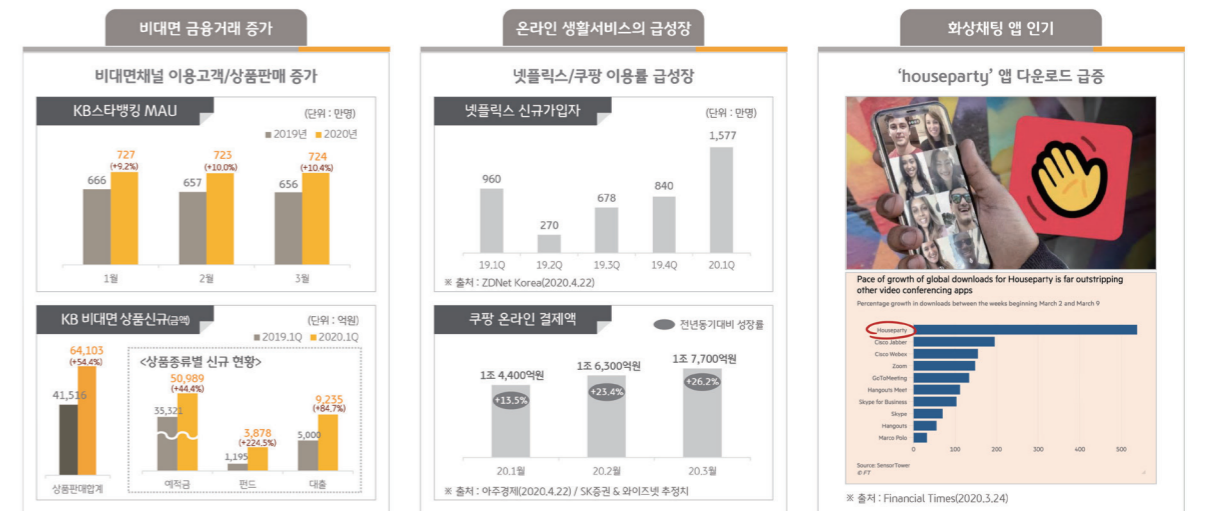
코로나 이후 디지털금융의 과제

2020.5.20
KB국민은행 디지털금융그룹
부행장 한동환



코로나19, 디지털 혁신 가속화

Untact 환경은 Digital Transformation의 가속화 촉진



디지털 금융 혁신

코로나 위기 이전 DT의 평가 ICT기업 벤치마킹

Digital Transformation의 시작은 디지털 선도 기업의 벤치마킹 → ICT기업 모방의 유행

Agile 업무방식은 벤치마킹 - Pivotal Labs



본부부사장 워크숍 - 디지털/스타트업 기업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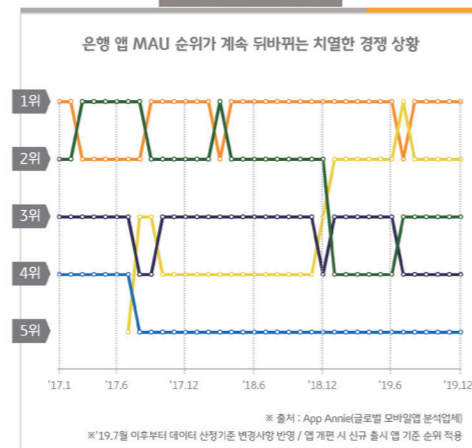
코로나 위기 이전 DT의 평가 UX/UI의 평준화

비슷해지는 banking 앱의 UX/UI → 모방 단계를 넘어 '창조적 Reboot'가 필요한 시점

은행별 앱 홈화면 비교



은행 앱 MAU 순위 추이



디지털 금융 혁신

혁신의 사례

관성을 깨는 생각의 전환이 진정한 혁신의 시작

비너스의 탄생(The Birth of Ven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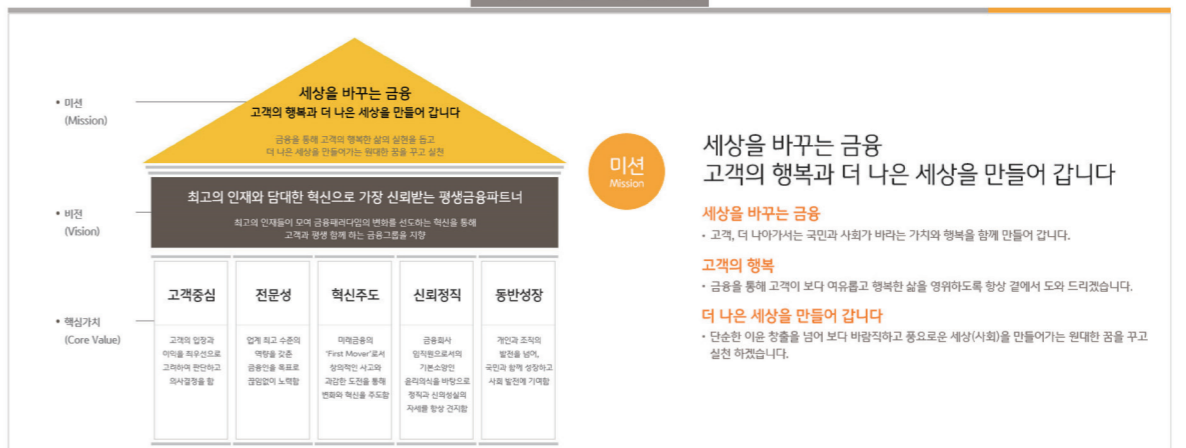
샘(Fountain)



혁신의 방향성

혁신은 수단, 목적은 '개인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는 것'

KB금융그룹 미션·비전·핵심가치



디지털 금융 혁신

혁신의 방향성

일상 공간에서의 고객 경험 재설계가 바로 혁신의 시작 → ‘고객 중심(Customer Centric)’의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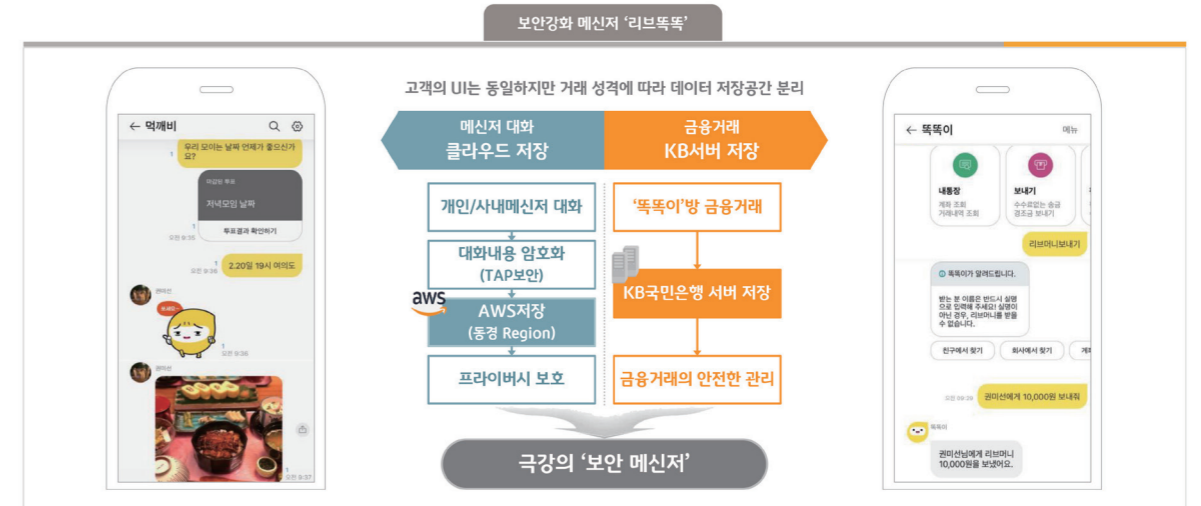


Hagerstrand(1916~2004)
스웨덴의 지리학자로 시간지리학(time-geography)* 개척
* 시간과 지리적 공간을 통하여 사회적 사건들이 구조화되는 방식에 초점을 두는 지리학의 접근법

디지털 금융 혁신

혁신의 실행_연결(Connectivity)

고객과의 연결 - 'AI 메신저'를 통해 고객과 금융을 안전하게 연결시켜 주는 '리브톡톡'



※ 금융보안원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 준수/ 「비중요 정보처리 시스템」 지정정보(제1금융권 대고객 서비스 대상 금융감독원 최초보고, 17.7월)

혁신의 방향성

KB는 고객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부동산 등을 금융과 결합하여 고객경험을 설계



※ 출처: KB제피탈 홈페이지

※ 출처: 유튜브 KB부동산 리브온

혁신의 실행_연결(Connectivity)

플랫폼간의 연결 - 하나의 인증서로 다양한 플랫폼간 '로그인'과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KB모바일인증서'



- “KB모바일인증서” 특징
- ▶ 첫거래 고객도 영업점 방문 없이 'KB스타뱅킹' 앱으로 모든 거래 OK!
 - ▶ 보안카드/OTP 없이 이체, 상품가입, 공인인증서 발급까지 가능!
 - ▶ 유효기간 없이 평생 이용 가능한 KB금융그룹 사설인증서 서비스!
 - ▶ Liiv M 유심에 저장한다면 휴대폰을 바꾸어도 인증서 재발급 불필요!

※ KB계열사 앱 연계 확대 추진 중

디지털 금융 혁신

혁신의 실행 Simple & Easy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탬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 - 생텍쥐페리 -

피카소의 '황소(Bull)'

본질적인 핵심 요소만 남을 때까지 단순화

[피카소, 1945년]

출처: https://www.artfactory.com/art_appreciation/animals_in_ert/pablo_picasso.htm

Simple 디자인 사례

[애플] 리모콘과 마우스

[구글] 검색창

출처: 애플/구글 홈페이지

혁신의 실행 Simple & Easy

KB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메뉴 구성을 단순화하거나(리브) 개인화·자동화된 금융관리 서비스(KB마이머니) 제공 중

리브

간편조회, 간편송금 중심의 banking 앱 '리브' 운영

[KB스타뱅킹- Full Banking]

KB마이머니

자동으로 자산을 통합관리하고, 개인화된 진단 서비스 제공

[자산관리]

[지출관리]

디지털 금융 혁신

혁신의 실행 문화(Culture)

실리콘밸리 혁신의 뿌리는 기술(Technology) 보다는 문화(Culture)

Stay hungry, Stay foolish.

Steve Jobs
1955-2011

혁신의 실행 문화(Culture)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 개념을 생생한 경험으로 창조하는 역량

Design Thinking의 정의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독창성'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Design Thinking'

DESIGN THINKING AT THE CORE OF INNOVATION

Design Thinking as the combination of analytical and intuitive thinking

Source: Adapted from Martin R., The Design of Business: Why Design Thinking is the Next Competitive Advantage,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2009.

Design Thinking의 단계

사용자가 원하는(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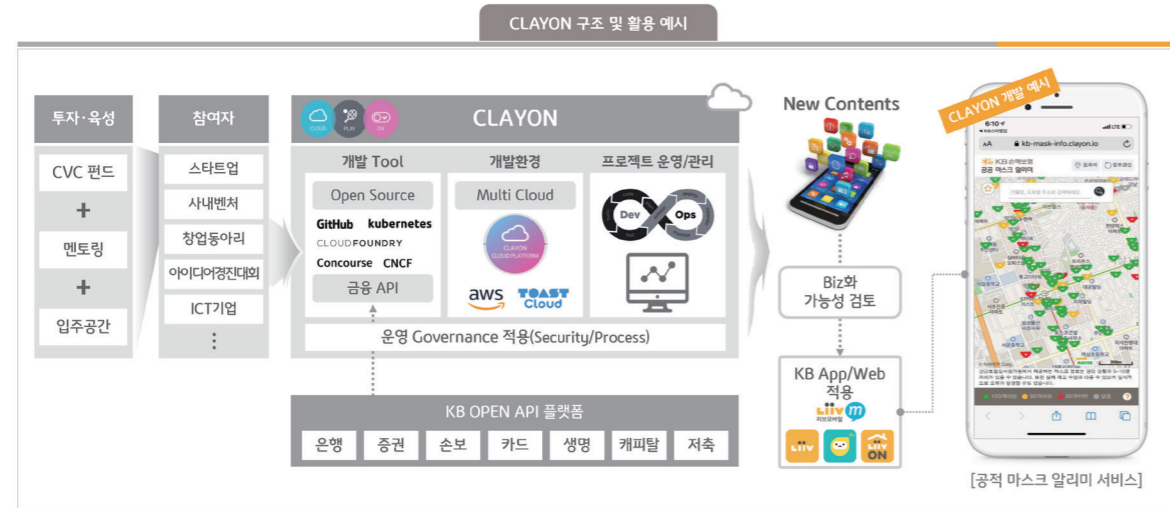
1. Empathize : 사용자의 관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2. Define :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의 내린다
3. Ideate : 정의 내린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다
4. Prototype : 프로토타입을 만든다
5. Test : 테스트를 통해 검증한다

출처: <http://design.gabia.com/wordpress/?p=31372>

디지털 금융 혁신

혁신의 실행 문화(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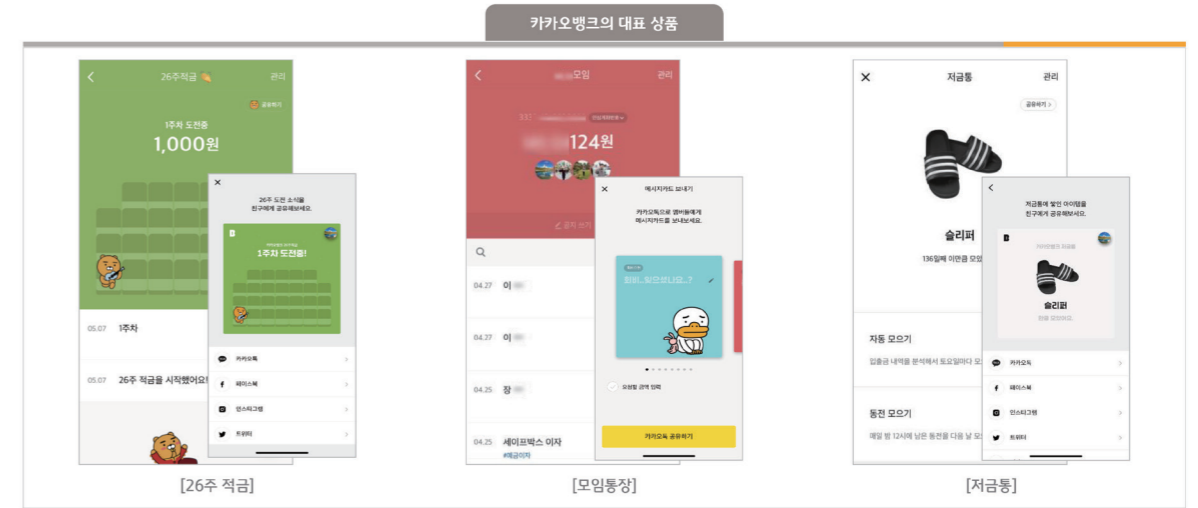
클라우드와 API 기반의 협업 플랫폼 'CLAYON' - 기존 Legacy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가 가능한 개발환경 구현



디지털 금융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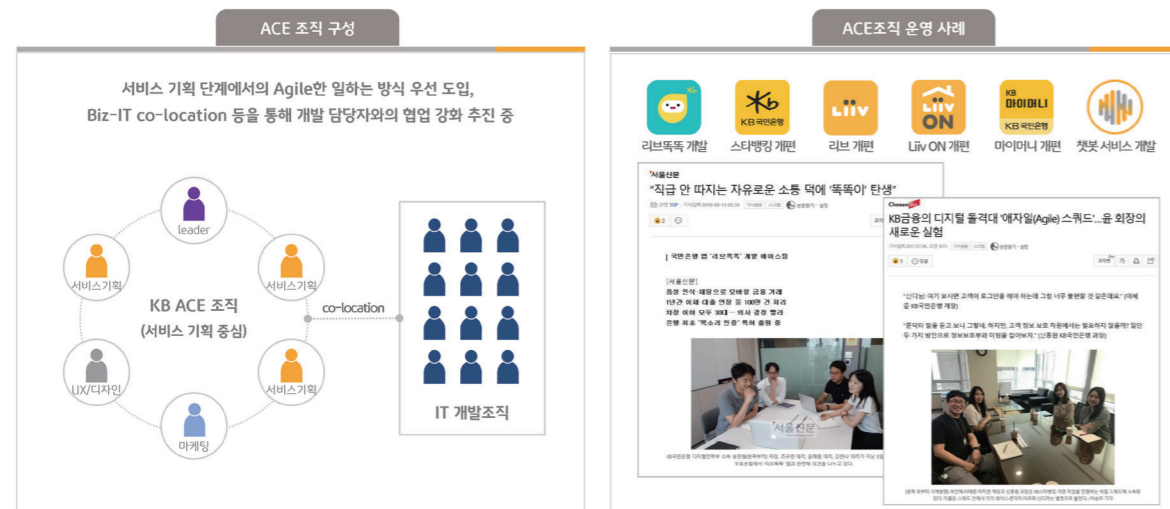
혁신의 실행 문화(Culture)

카카오뱅크의 대표 상품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고객 관점의 Design Thinking의 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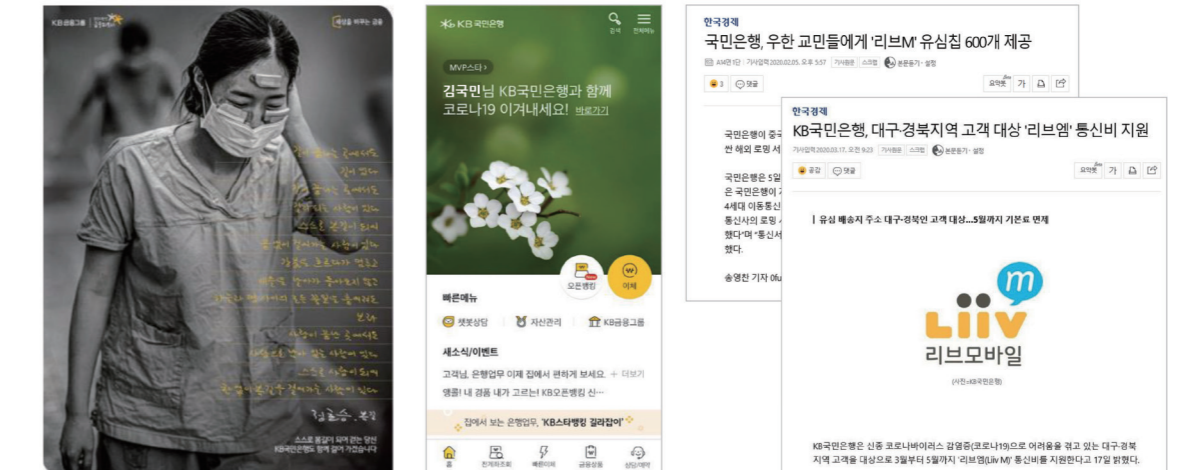


혁신의 실행 문화(Culture)

KB의 Agile 조직 'ACE' - KB의 환경에 맞게 조직을 구성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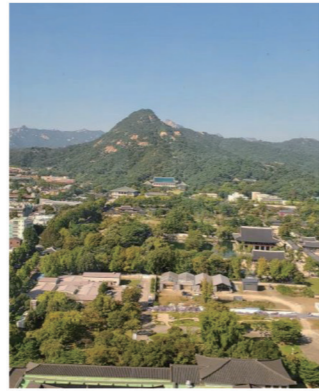
가능 이상의 가치 지향



디지털 금융 혁신

맺음말

全美之地



감사합니다



MEMO

Lined area for taking notes, consisting of multiple horizontal lines.

강연 | 오픈뱅킹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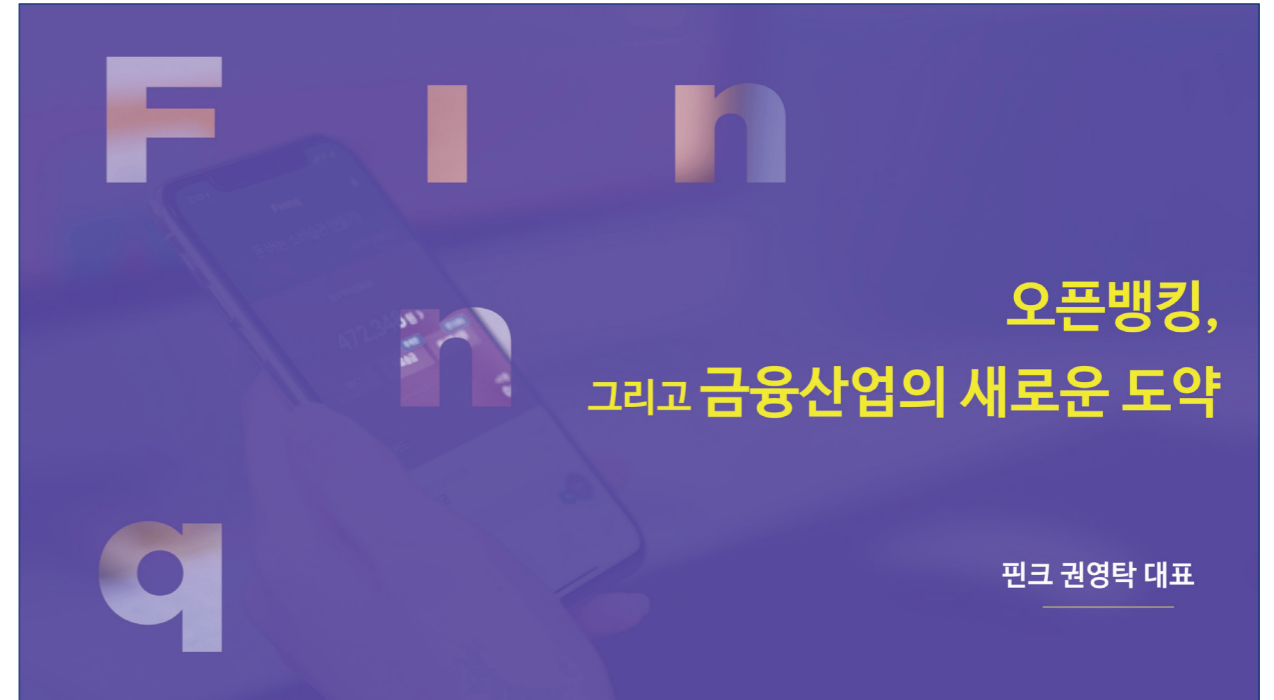


권영탁 핀크 대표

- (주)핀크 대표이사(2019~)
- (주)핀크 최고운영책임자(2016~2019)
 - 금융과 통신이 결합된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출시 및 성공적 안착
- 하나카드 모바일팀·모바일마케팅팀·핀테크사업팀(2010~2015)
 - USIM 기반 최초 모바일카드, Non USIM 기반 '모바일페이' 사업 론칭
- SK텔레콤 콘텐츠상품팀/판매기획팀/마케팅전략팀(1994~2009)
 -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 및 히트, 통신금융 합작투자회사 설립 주도

SAFF
SEOUL ASIAN FINANCIAL FORUM

오픈뱅킹 본격화



오픈뱅킹 본격화

오픈뱅킹 본격화



Finnq

작년도 12월 **오픈뱅킹 시행**에 따라
드디어 모든 은행 연결 완료

Finnq

다양한 데이터 축적과 함께 머신러닝을 통해 고도화하고,
금융 기관은 물론, 산업군을 넘나드는 다양한 Collaboration을 통해
ICT기술기반의 포용적 금융을 실현해보자!

개방

오픈뱅킹 본격화

Finng

2002년도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망 개방

폐쇄적이었던 국내 이통3사의 망개방을 통해
본격적인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 유발



오픈뱅킹 본격화

Finng

2019년도 금융사의 금융결제 망 개방



통신사의 무선인터넷망을 이용, 통신사는 하기 어려운
새로운 가치혁신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지금의 성장 기틀을 확보



Finng

Finng

공동 오픈 API 시스템 확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 및 고객 데이터를
오픈 API로 제3자에게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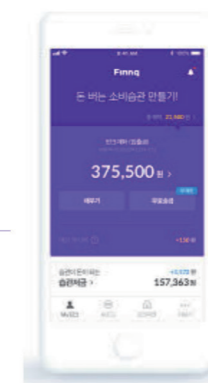


비용 부담 감소

금융 시장 내 핀테크 기업 진입장벽 해소 및
낮은 수수료로 이용료 부담 감소

금융 산업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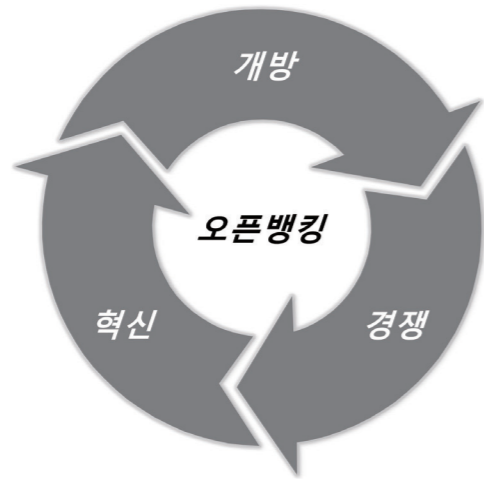
지급결제 인프라 개방을 통해 폐쇄적이었던
금융 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



이용자 편의 확대

은행단위로 개별 앱 설치가 아닌
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금융 서비스 이용

오픈뱅킹 본격화



오픈뱅킹 본격화

오픈뱅킹으로 인해 촉발 예상되는 경쟁의 다원화

Finny

- 전통적인 은행간 경쟁,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사업자까지 동일선상에서 경쟁



Fin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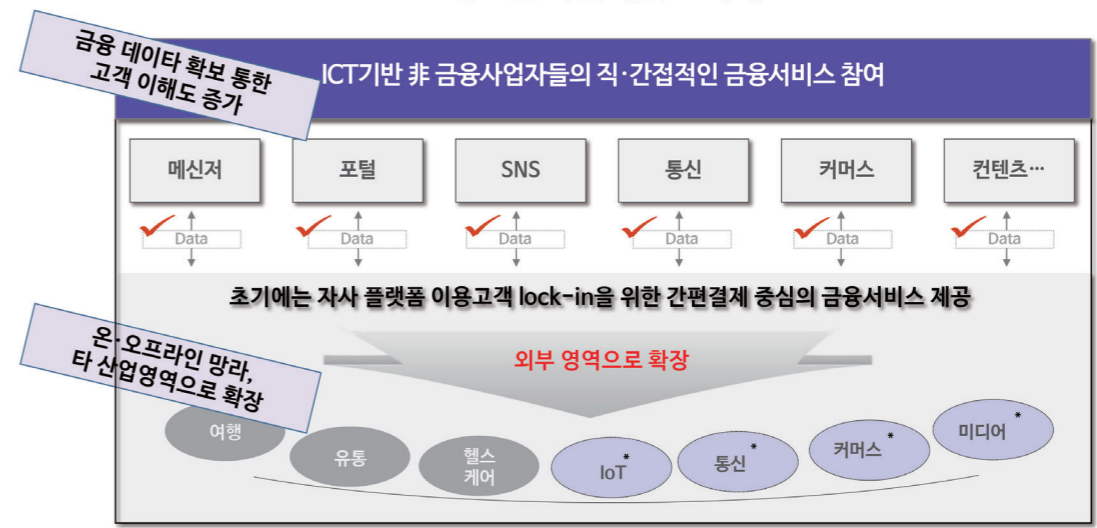
무선인터넷망 개방이 거대 플랫폼들을 만든 것처럼...

오픈뱅킹 개방으로 인해, 은행이 하기 어려운

ICT기반의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들과 플랫폼이 다수 출현할 것

테크핀 사업자들도 가세

Finny



오픈뱅킹 본격화

Finnq

돈이 있는 고객과 그 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연결하는 사업

오픈뱅킹 본격화

Finnq

하지만, 그러한 금융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와 시각은...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
 낮은 고객 충성도
 폐쇄적
 정보 불균형
 높은 수수료 / 높은 IT 비용
 복잡한 절차
 보수적
 오프라인 기반
 사일로 구조
 비싼 금리 / 불편한 시스템
 전문가 영역
 고비용 구조

Finnq

따라서 전통적인 금융산업에서 중요했던 것은...



고객들이 찾기 쉬운
좋은 입지



철저한 Risk관리를
통한 수익 극대화



서비스 보안성과
안정성

반면, ICT는 태생적으로 혁신을 통한 효율개선 추구

오픈뱅킹 본격화

Finnq

따라서, 핀테크가 바라보는 **중요한** 것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존 프로세스 혁신**

서비스 편의성 등 **기존 고객 경험 혁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존 고객 이해도 혁신**

오픈뱅킹 본격화

Finnq

모바일 등 비대면 접점 내 고객의 Engagement 수준을 높이는 역량

기술과 금융을 조합시킬 수 있는 역량 (AI, Blockchain, Cloud, Data...)

Data를 수집/활용하여 기존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역량

보안을 비롯, 안정적 인프라 운영 역량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무 안정성

Finnq

오픈뱅킹 본격화에 따라 향후 금융서비스 경쟁의 **핵심요소**는...

Finn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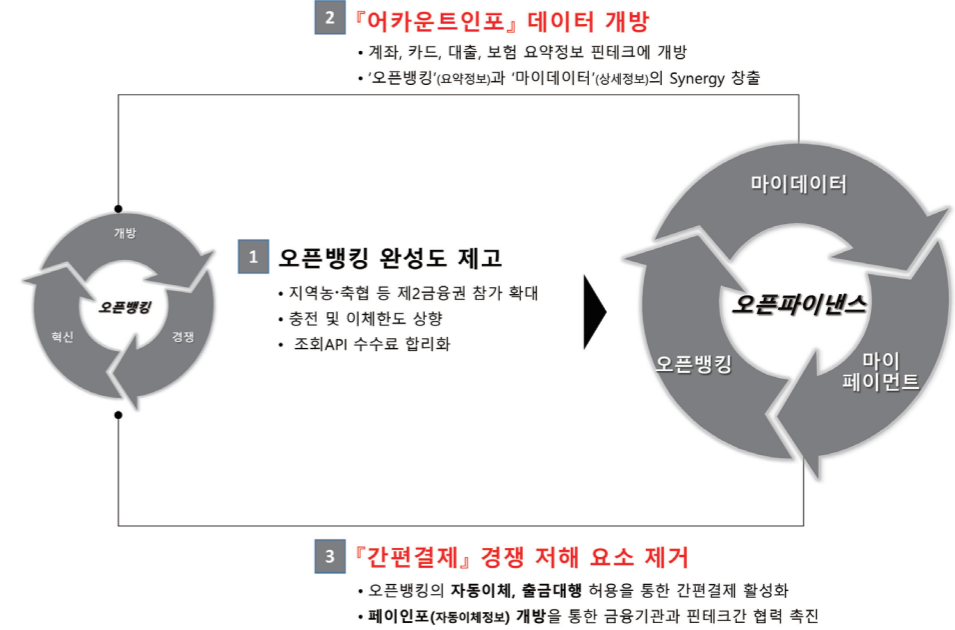
오픈뱅킹 단계에 돌입한 국내 금융서비스...
향후 추가적인 금융규제 완화방향/수준, ICT활용 역량에 따라
누가 **Game Changer**가 될지 결정될 것

오픈뱅킹 본격화

Finnq

COO-PETITION (협쟁)

오픈뱅킹 본격화



Finnq

금융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관련 추가적인 제안

오픈 API 대상 확대를 통한 고객접근성 향상

- 지역 농·축협, 증권사 등 제2금융권 참여 확대(지역 농축협 계좌 수는 전 은행권의 1/6수준)

충전 및 이체한도 상향을 통한 고객 이용편리성 제고

-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현재 충전한도 200만원, 오픈뱅킹 일 출금한도 1,000만원
- 보안인프라 수준 검증을 거쳐 충전/이체한도 상향 필요

조회 API 수수료 합리화

- 이체 수수료는 1/10수준으로 인하된 반면, 조회수수료는 일부 소폭 조정
(대부분 핀테크 기업은 조회 API활용하지 못함)

Finnq

【 기업의 평균수명이 1960년대에는 60년이였다면, 지금은 15년,

2020년에는 12년에 불과할 것...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포춘 500대 기업의 52%가 사라질 것】

- Ray Wang (컨스터레이션 리서치 애널리스트)

【 2020년까지 모든 기업은 둘 중 하나의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디지털 약탈자, 또는 디지털 희생자】

- 포레스터 리서치

오픈뱅킹 본격화



MEMO

강연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

- 데일리금융그룹 창업자&대표이사(2015~)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2015~)
- 미래에셋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010~2015)
- 월리스타워스왓슨(HK) 보험금융사업부 (2007~2010)
- 삼일회계법인 금융본부 공인회계사(2001~2005)
- CPA, FSA, CFA
-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경영학 석사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SAFF
SEOUL ASIAN FINANCIAL FORUM

데이터 경제 활성화

DAYLI Financial Group

데이터 경제 활성화
DATA & AI-driven 금융 혁신

대표이사 신승현



들어가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 금융 혁신?

디지털 금융 혁신의 '정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 금융 혁신의 '본질'

디지털 금융 혁신의 '현실과 진화: 데이터'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 금융 혁신의 '현실과 진화: 인공지능'

DATA & AI-driven 미래 금융서비스

데이터 경제 활성화

—
Thank you

 DAYLI Financial Group www.daylifg.com



강연 | 글로벌위기 속 투자전략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 자본시장연구원 원장(2018~)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2013~)
-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원장&경영학부 학장(2013~2015)
-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 일본 릿쿄대학교 조교수
- 일본 국제대학교 국제경영대학 조교수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강사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 박사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한국금융학회 회장(2018)
- 한국증권학회 회장(2017)

SAFF
SEOUL ASIAN FINANCIAL FORUM

글로벌위기 속 투자전략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투자업의 과제 및 규제 방향

2020년 5월 20일 아시아경제 포럼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박 영 석

목 차

-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 변화와 영향
-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투자업의 변화와 평가
- 3 금융투자업의 과제 및 규제 방향성

글로벌위기 속 투자전략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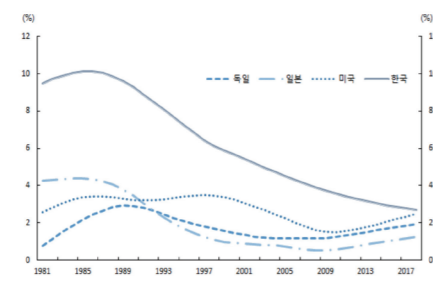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 변화와 영향

세계경제 성장의 장기궤도 이탈

세계경제 성장의 장기궤도 이탈 기간이 길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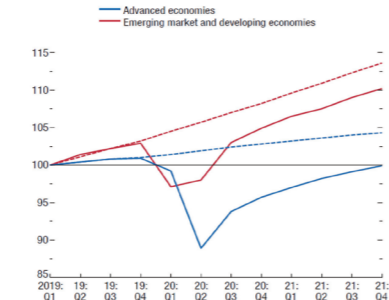
- >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률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이미 2.0% 내외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
- > 코로나19가 통제된다 하더라도 위기 이전 실질GDP 장기추세로의 복원은 쉽지 않을 전망
- >> 국가별 경제회복은 팬데믹 규모, 경제폐쇄 기간, 정책대응의 효율성 등에 따라 차별화

코로나19 확산 이전 주요국 실질GDP 추세



주 : 장기 추세는 HP 필터로 추출
자료: OECD

코로나19 통제 이후 세계경제 회복 추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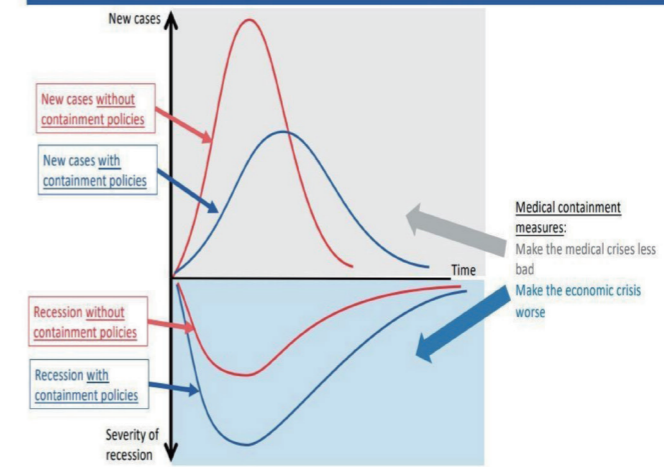
주 : 2019년 1분기 실질GDP=100, 코로나19 2020년 하반기 통제 가정
자료: IMF(World Economic Outlook, 2020.4., p9 Figure 1.6 재인용)

자본시장연구원

글로벌위기 속 투자전략

세계경제 성장의 장기궤도 이탈

Containment policies flatten the medical curve, but steepen the recession curve



자본시장연구원

경제적 국수주의 심화

폐쇄적 무역정책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국수주의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

- > 코로나19 확산 이전: 폐쇄적 무역정책 발현
- >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다양한 양상의 국가 간 갈등이 점화

2020: 코로나19

성장한계, 정치적 목적 등으로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의 유인 증가

↓
폐쇄적 무역정책으로 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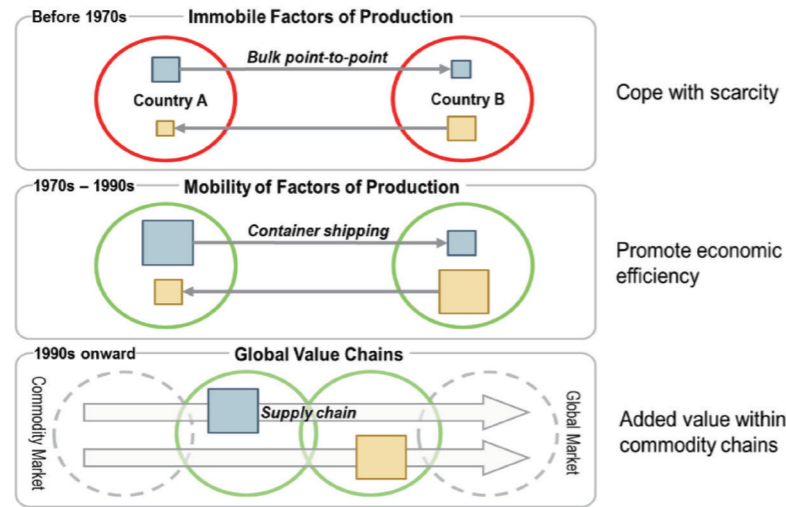
추가적인 국가 간 갈등

- ✓ 바이러스 진앙을 둘러싼 美中 갈등
- ✓ EU 국가 간 긴급 정책지원 불협화음
- ✓ 에너지 수요 급감에 따른 산유국 간 갈등

자본시장연구원

글로벌위기 속 투자전략

경제적 국수주의 심화



자본시장연구원

비대면 경제(untact economy) 가속화

- 팬데믹 이전에 태동해 발전하던 비대면 경제가 가속화될 전망
- > 동인: 팬데믹 재확산에 대한 두려움, 비대면 경제의 효율성에 대한 경험
 - > 분야: 수요자 및 공급자 측면의 다양한 범위를 포괄
 - >> 온라인을 통한 쇼핑, 여가, 교육
 - >> 원격근무, 원격진료
 - >> AI 기반의 Smart Workplace / Factory

2020: 코로나19

비대면 경제 태동 및 발전

-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1인 가구 증대
- ✓ 플랫폼 경제에 대한 수요 증가
- ✓ IT 기술의 급격한 발전

비대면 경제 가속화

- ✓ 수년간 팬데믹 재확산에 대한 두려움 지속
- ✓ 재택 근무에 대한 가능성 경험
- ✓ Smart Workplace / Factory 효율성 경험

자본시장연구원

글로벌위기 속 투자전략

제로금리 및 대규모 자산매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부분 국가에서 적극적인 통화완화정책 수행

-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토대로 기준금리 인하와 자산매입 병행
- > 신속성과 자산매입 범위, 규모 측면에서 2008년 이상 수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국의 통화완화정책

기준금리 인하 (주요국 기준금리 현황)	자산매입 프로그램 (전체적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Federal funds rate 0~0.25%로 인하 (총 150bp 인하) ✓ 영국: Bank rate 0.1%로 인하 (총 65bp 인하) ✓ EU: Main refinancing operations rate 0.0% 유지 ✓ 일본: Overnight interest rate -0.1% 유지 ✓ 한국: 기준금리 0.75%로 인하 (총 50bp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금융위기 직후 활용했던 수단과 유사. 다수의 국가에서 채택 ✓ 자산매입 범위 확대: 회사채, CP, MBS, 정크 본드(美), ETF(日) 등 사실상 주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권 포함 ✓ 자산매입 대상 확대: 정부, 지방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 대부분의 발행자 포함 ✓ 자산매입 규모: 매입상한 폐지 또는 대폭 상향 조정, 구두 개입을 통한 무제한 매입 시그널 제시
<p>※ 재할인을 인화, 공개시장조작 등 기타 전통적 통화정책도 적극 수행</p>	

자본시장연구원

주요국 정부부채 급증

경제폐쇄가 심했던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정부부채 급증

- > 4월 8일 기준 G20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확대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2008~2010년) 3년간의 재정확대 규모에 근접
- > 2010년대 중반에 소폭 줄어들었던 정부부채 규모(GDP 대비)가 2020년말에 급증 예상

G20국 코로나19 대응 재정확대 규모



주 : G20국 GDP 대비 재정확대 비중. 가중평균 기준. 4월 8일 기준
자료: IMF (Fiscal Monitor, 2020.4, Figure 1.1 재인용)

선진국 GDP 대비 정부부채



주 : (좌축) 선진국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 (우축) 선진국 세수 대비 정부 이자지출 비중. 2020년은 전망치
자료: IMF (Fiscal Monitor, 2020.4, Figure 1.3 재인용)

자본시장연구원

글로벌위기 속 투자전략

기업 장기가치에 대한 투자자 시각 변화

기업 장기가치에 대한 기존의 시각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

- > 효율성 중심의 경영을 통한 기업이익과 주주환원 극대화는 지속가능성 낮음
- >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의 공존, 이해관계자 공존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확대
 - >> 환경, 전염병 등으로 인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무한 증폭될 수 있다는 사실 체험
 - >> 주주, 경영진, 근로자, 사회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 체험

→ 2020: 코로나19 →

- ✓ 효율성 강조
- ✓ 기업이익 극대화를 통한 주주환원
- ✓ 양극화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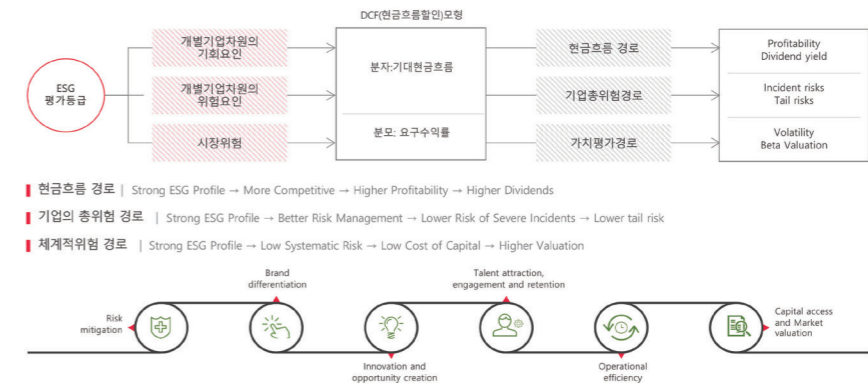
- ✓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의 공존 강조
- ✓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
- ✓ 이해관계자 공존 중요성 인식

글로벌위기 속 투자전략

기업 장기가치에 대한 투자자 시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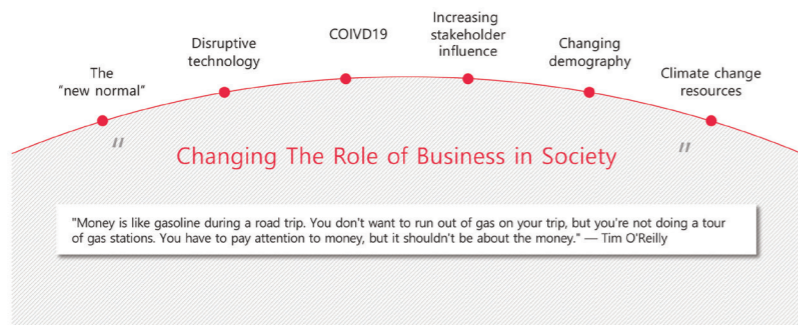
ESG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경로

전통적 DCF모형에서 ESG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경로들



기업 장기가치에 대한 투자자 시각 변화

기업의 역할에 관하여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자료 : PwC

환경 변화의 영향

- ✓ 세계경제 성장의 장기궤도 이탈 (①②⑧)
 - ✓ 경제적 국수주의 심화 (③④⑤)
 - ✓ 비대면 경제 가속화 (①②)
 - ✓ 제로금리 및 대규모 자산매입 (⑥⑦⑧)
 - ✓ 강력한 정부의 등장과 정부부채 급증 (⑨)
 - ✓ 기업 장기가치에 대한 투자자 시각 변화 (⑩⑪)
- ①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글로벌 경쟁 가속화
 - ②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③ 국가 간 교역 둔화
 - ④ 경제 통합화 및 블록화 추세 쇠퇴
 - ⑤ 전략산업 및 주가하락으로 취약해진 주력기업 보호정책
 - ⑥ 쏠림, 새로운 유형의 위험 등 자산시장 불안정 증폭
 - ⑦ 크고 작은 금융위기 빈발
 - ⑧ 국가 간, 국가내 소득불균형 심화
 - ⑨ 정부부채 누적 또는 부채의 축소단계에서 오는 부작용
 - ⑩ 글로벌 공급망 변화
 - ⑪ ESG, Stakeholder Capitalism 본격적 부상

글로벌위기 속 투자전략

환경 변화의 영향

-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글로벌 경쟁 가속화**
 - ✓ 다른 국가 대비 신속한 성장궤도 회복과 성장의 질 확보 경쟁
 - ✓ 고생산성, 고부가가치 시장 선점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 상품, 서비스(금융, 교육, 건강관련) 전반에 확산
 - ✓ AI, 빅데이터 기술 기반 급속 확산
 - ✓ 공급자, 수요자 양 측면의 유인 동기 형성
- 국가 간 교역 둔화**
 - ✓ 거대 경제 강국(미, 중, EU) 간의 전략적 갈등
 - ✓ 핵심 기술 기반의 소재산업 및 전략 혁신산업 보호 관점
 - ✓ 자국 고용 보호 관점
- 경제 통합화 및 블록화 추세 쇠퇴**
 - ✓ 국가 간 신뢰의 상실
 - ✓ EU 내 갈등 고조 가능성
 - ✓ 아시아판드페스트 등 새로운 블록화 어려움 직면
- 전략산업 및 추가하락으로 취약해진 주력기업 보호정책**
 - ✓ Cross-Border M&A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
 - ✓ 경제내 공공부문의 비중이 큰 국가에 대한 경제 강화 (예: 중국)
- 쏟림, 새로운 유형의 위험 등 자산시장 불안정 증폭**
 - ✓ 극도로 낮아진 자본수익률을 보완하기 위한 위험 수용 증대
 - ✓ 금융공학 기반의 새로운 복잡금융상품 등장 가능성

자본시장연구원

환경 변화의 영향

- 크고 작은 금융위기 빈발**
 - ✓ 새로운 유형의 위험 등장 가능성
 - ✓ 통화의 국제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국가, 팬데믹 충격이 상대적으로 커서 정부부채가 급등한 국가 등의 경제적 취약성 증폭
- 국가 간, 국가 내 소득불균형 심화**
 - ✓ 새로운 혁신 경제로의 이행에 뒤쳐진 국가 또는 경제 주체
 - ✓ 자산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가 또는 경제 주체
- 정부부채 누적 또는 부채의 축소단계에서 오는 부작용**
 - ✓ 새로운 위험 발생 시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갈수록 축소
 - ✓ 정부부채의 축소 단계에서 규모나 속도 조절 실패 시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불안 야기
- 글로벌 공급망 변화**
 - ✓ 상존하는 각종 위험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경험 체험
 - ✓ 중국 등 소수 저비용 국가에 집중된 공급망의 위험성
 - ✓ 변화 방향: 자국회귀 또는 비용이 더 낮은 다수 지역으로의 다변화
- ESG, Stakeholder Capitalism 본격적 부상**
 - ✓ 관련 규제 및 제도 정비 등에 대한 논의 본격화
 - ✓ 기업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진행

자본시장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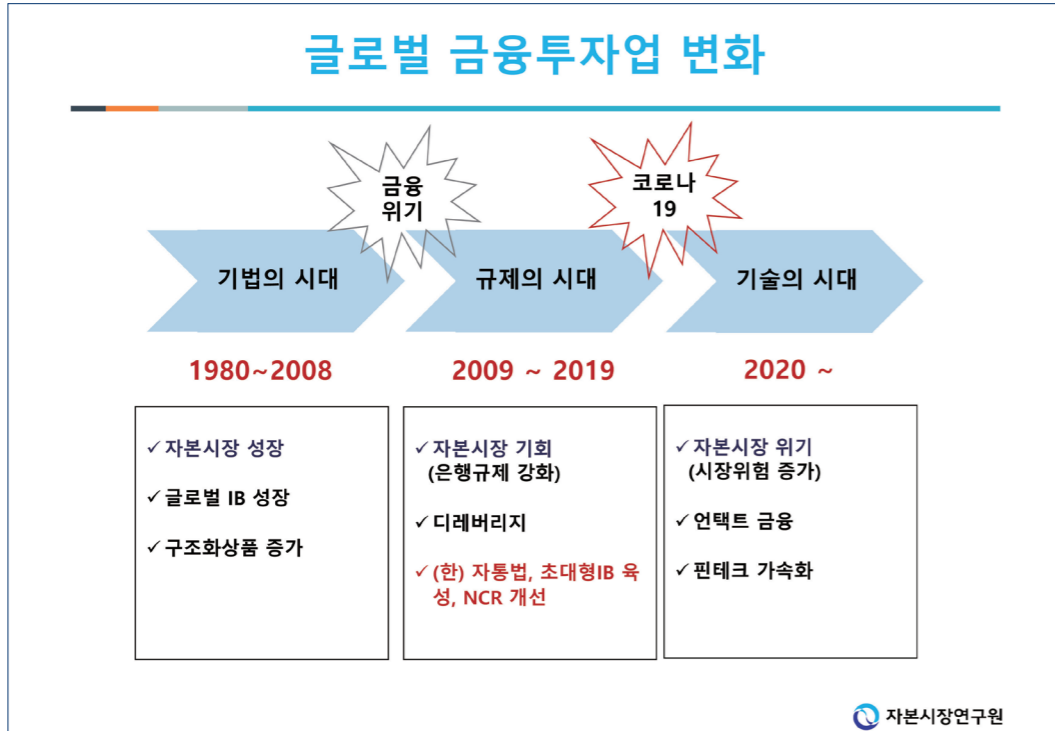
글로벌위기 속 투자전략

-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 변화와 영향
-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투자업의 변화와 평가
- 3 금융투자업의 과제 및 규제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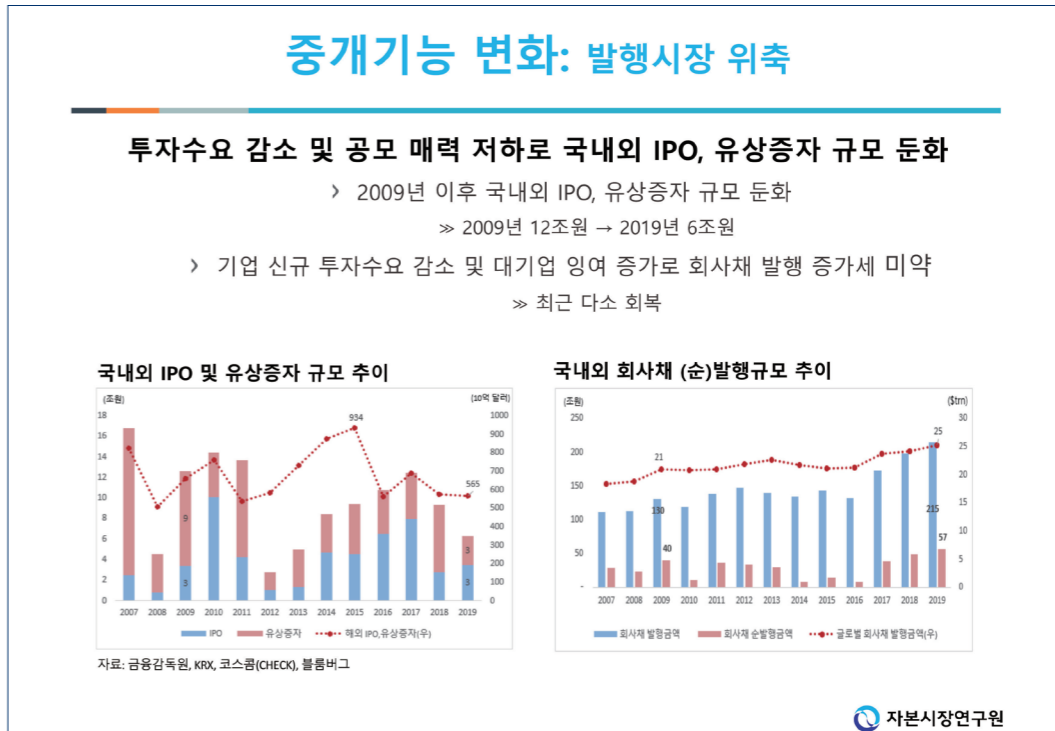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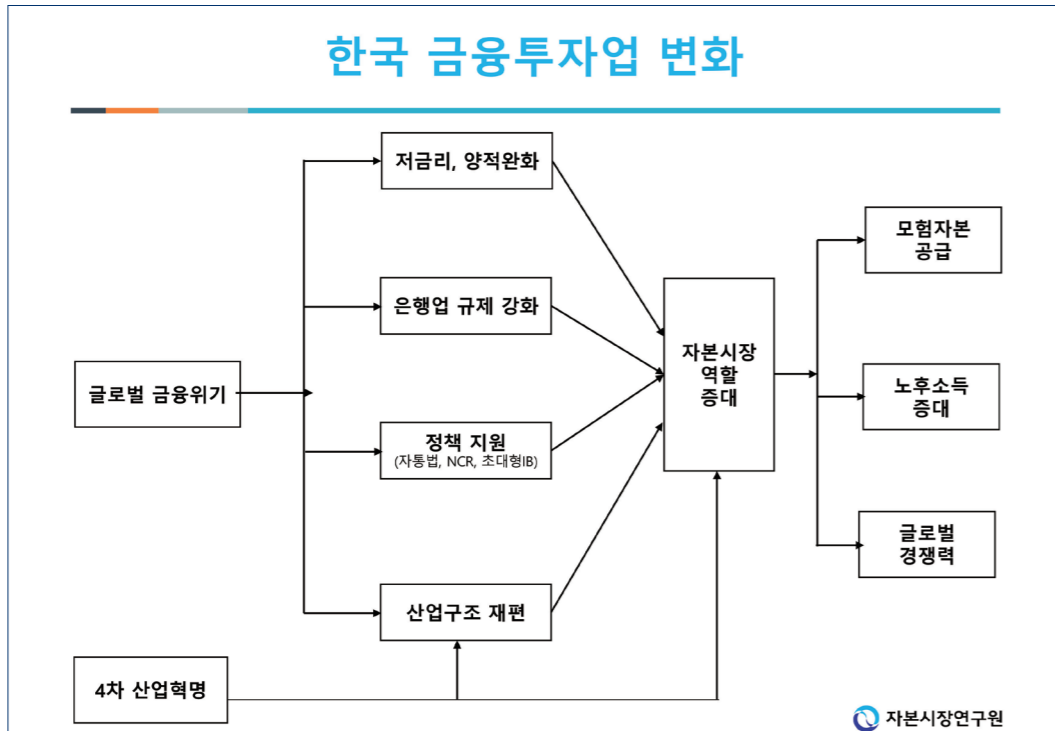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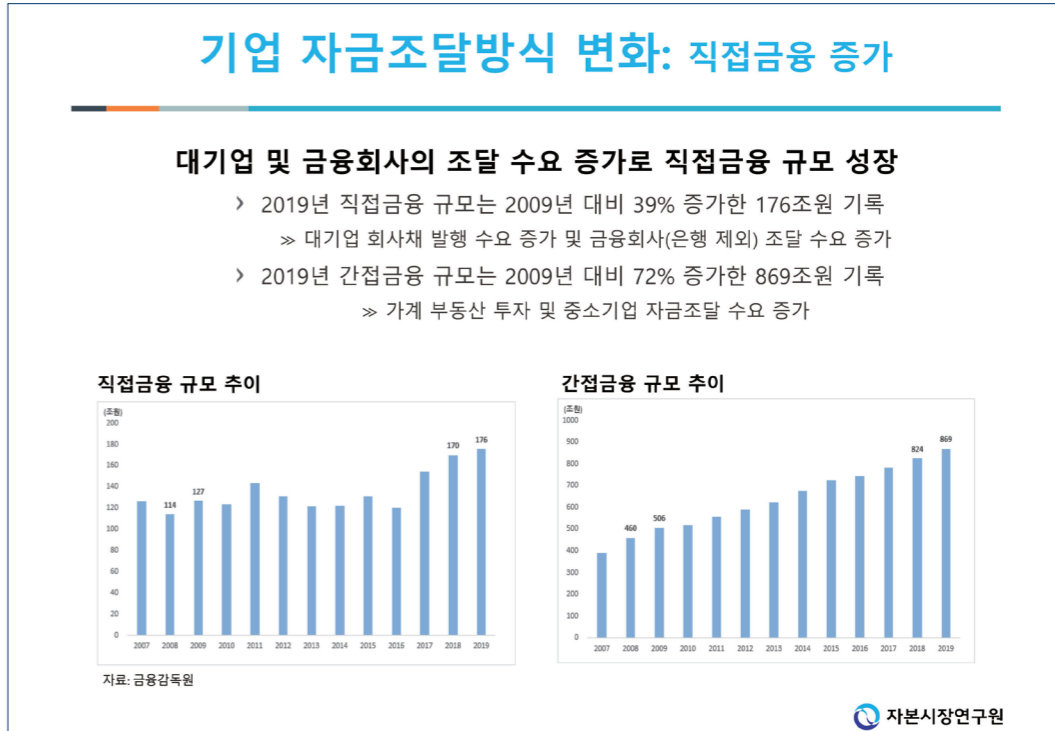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투자업의 변화와 평가

글로벌위기 속 투자전략



글로벌위기 속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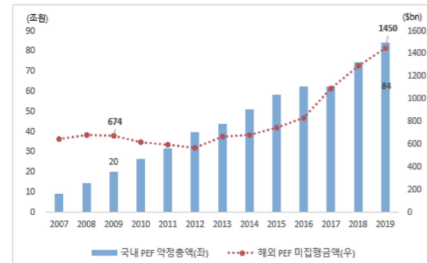
글로벌위기 속 투자전략

중개기능 변화: 사모시장 증가

혁신산업의 성장 기대 및 기업구조조정 수요 증가로 사모시장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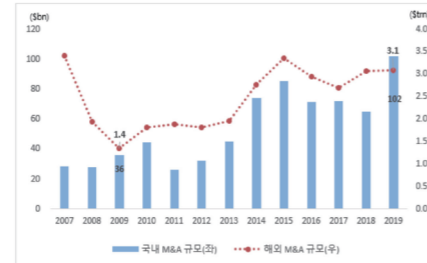
- > ICT, 바이오 등 성장산업 투자 수요 증가로 국내 PEF 약정총액 규모 증가
 - >> 2009년 20조원 → 2019년 84조원
- > 기업구조조정 수요 증가로 국내 M&A 규모는 꾸준히 증가
 - >> 2009년 36조원 → 2019년 102조원

국내의 PEF 약정총액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블룸버그

국내의 M&A 규모 추이



자본시장연구원

중개기능 변화: 벤처투자 증가

혁신성장산업 투자 수요 증가로 벤처 신규투자 규모는 빠르게 증가

- > 글로벌 IB들은 성장성 제고를 위해 스타트업 PI 투자 규모를 확대
- > 국내 증권사 역시 PI 투자 및 계열사 투자를 통해 벤처 신규투자 확대
 - >> ICT, 바이오 등 혁신성장산업 투자 수요 증가의 결과

국내의 벤처 신규투자 규모 추이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Crunchbase

미국 3개 IB의 PI투자 규모 추이



자본시장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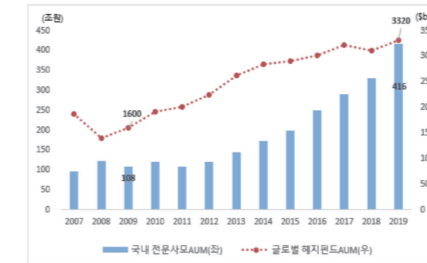
글로벌위기 속 투자전략

중개기능 변화: 대체자산 증가

저금리, 저성장 기조 속에서 대체자산의 투자 매력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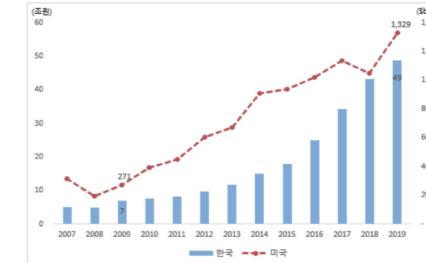
- > 한국 헤지펀드 빠르게 증가(2009년 108조원 → 2019년 416조원)
 - >> 높은 기대수익률, 분산효과,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 등의 영향
- > 부동산 관련 펀드로 자금 유입 증가(REITS 규모: 2009년 7조원 → 2019년 49조원)
 - >>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및 안정적 배당소득 기대

국내의 헤지펀드 규모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HFRI, 국로교통부, NAREIT

국내의 REITS 자산규모 추이



자본시장연구원

중개기능 변화: 해외비중 증가

수익성 제고 및 투자 접근성 확대로 해외투자 비중 꾸준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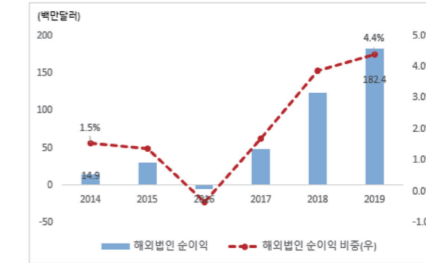
- > 해외직접투자 규모: 2009년 310억 달러 → 2019년 840억 달러
- > 증권업 해외법인 순이익도 증가: 2009년 0.1억 달러 → 2019년 1.8억 달러
 - >> 해외자산 증가수요 증가, 신사업 발굴을 위한 해외진출 증가의 결과

해외 직접투자(개인, 기업 등) 규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증권업 해외법인 순이익 및 비중 추이



자본시장연구원

글로벌위기 속 투자전략

금융투자업 변화 동인



자본시장연구원

긍정적 평가: 수익성 개선, 사업 다각화

자산운용 수익 증가 및 효율성 제고 노력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

› 증권업 ROE는 2013년 마이너스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7.9% 기록

브로커리지 중심에서 자기매매, IB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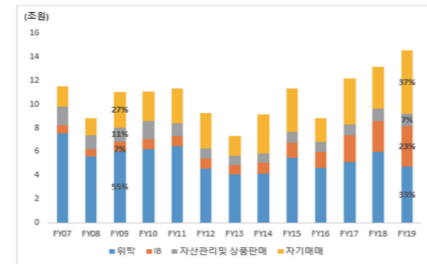
› ELS/DLS, 채무보증 등 자기매매, IB 사업의 수익성 제고 노력

증권업 수익성(ROA, ROE)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증권업 사업부분별 영업수익 추이



자본시장연구원

글로벌위기 속 투자전략

긍정적 평가: 대형화, 기업신용공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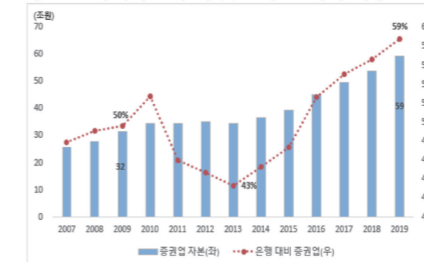
정책 지원 및 순이익 증가로 증권업 자기자본 빠르게 증가

› 증권업 자기자본은 2009년 32조원에서 2019년 59조원으로 증가
› 정책적 지원(자통법 도입, 초대형IB육성, NCR개선) 및 순이익 증가의 영향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 이후 기업신용공여 규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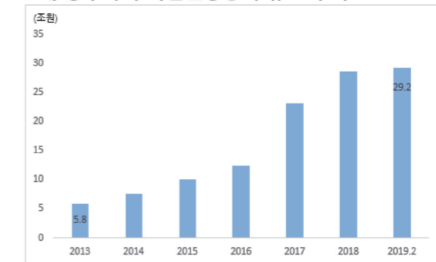
› 7개 중투자 기업신용규모: ('13년말) 5.8조원 → ('19년말) 29.2조원

증권업 자기자본 추이 및 은행업 대비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7개 중투사의 기업신용공여 규모 추이



자본시장연구원

부정적 평가: 고위험상품 쏠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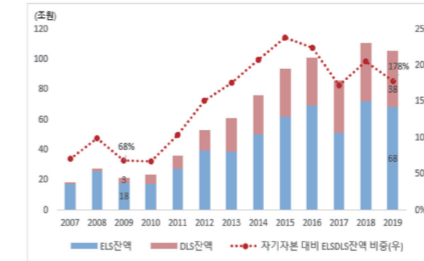
저금리 기조, 은행 판매채널의 확대 영향으로 ELS, DLS가 빠르게 성장

› ELS 및 DLS의 급격한 성장세: 2009년 21조원 → 2019년 106조원
› 예금보다 높은 제시 수익, 짧은 실질만기, 접근성 좋은 은행창구

부동산 투자 매력이 부각되며 채무보증 규모가 빠르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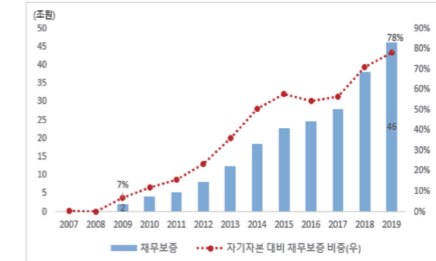
› 증권사 채무보증 규모: 2009년 2조원 → 2019년 46조원
› 저금리 환경하에 부동산PF를 중심으로 급증

ELS, DLS 발행잔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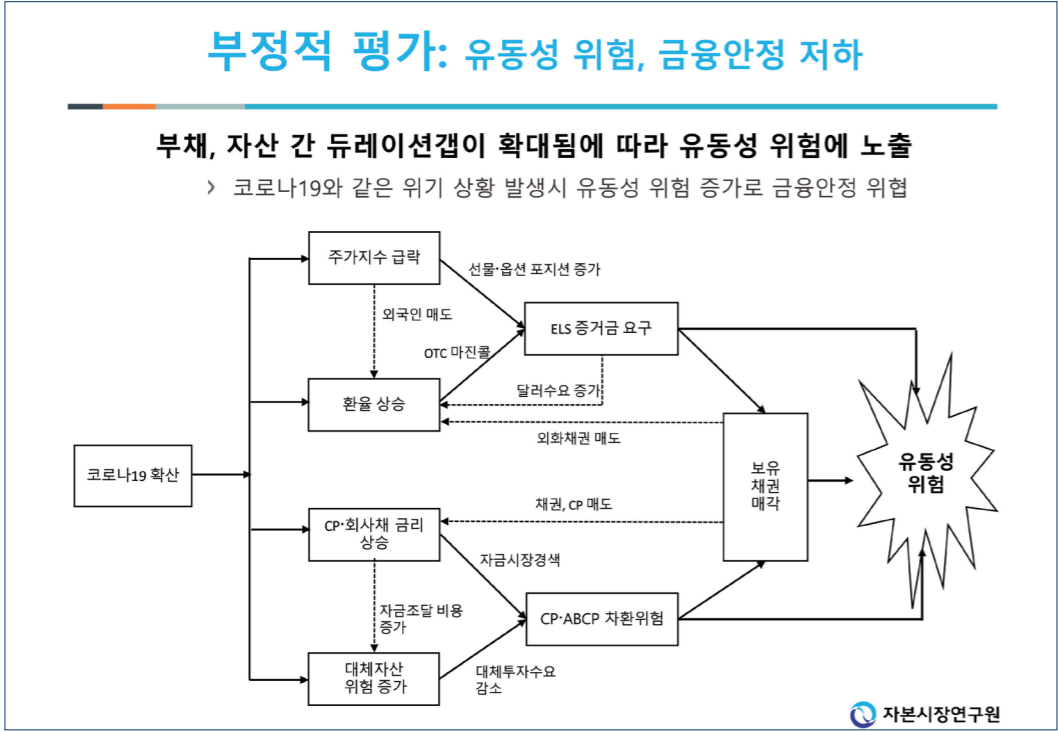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KRX, 코스콤(CHECK), 블룸버그

증권업 채무보증 규모 추이



자본시장연구원

글로벌위기 속 투자전략



-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 변화와 영향
-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투자업의 변화와 평가
- 3 금융투자업의 과제 및 규제 방향성

글로벌위기 속 투자전략

3

금융투자업의 과제 및 규제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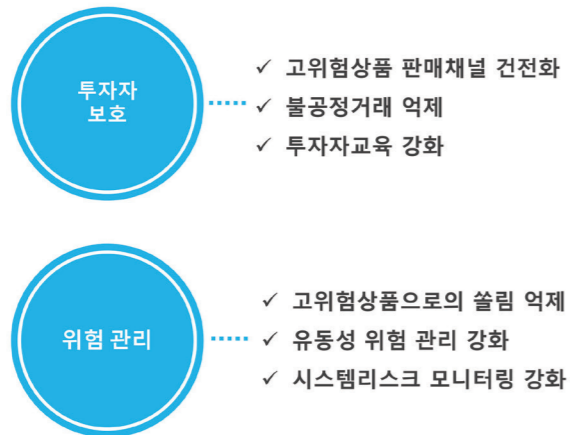
- ### 기본 방향
-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성장과 안정의 공존, 즉 균형 유지가 중요**
- > 기존 혁신성장 정책의 발전적 계승을 통해 글로벌 혁신경쟁에서 우위 선점
 - >> 정교한 전략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고생산성 기업들을 길러낼 필요
 - > 위험성이 높은 혁신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위험분산이 가능한 자본시장 역할이 중요
 - >> 특히 자본시장 중개기능의 핵심인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이 요구
 - > 코로나19 이후 성장 추구 과정에서 양산될 다양한 위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증폭될 미지의 위험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
 - >> **금융투자업: 글로벌 금융회사로의 성장과 건전성 유지 간의 균형**
 - >> **정부: 혁신성장과 금융안정 간의 균형**
- 자본시장연구원

글로벌위기 속 투자전략

금융투자업 효율적 경영전략의 전제조건

효율적 경영전략의 기본 축은 투자자 보호와 위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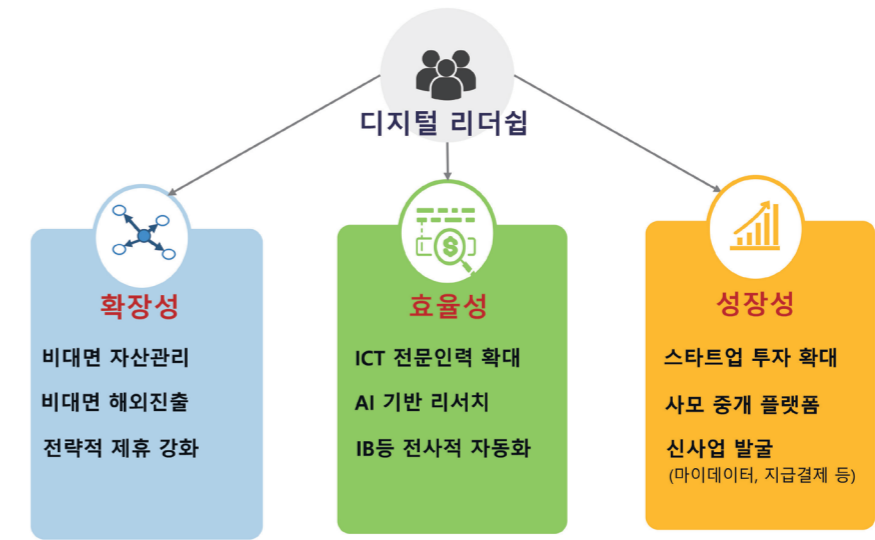
이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떤 경영전략의 지속가능성도 담보 불가



자본시장연구원

글로벌위기 속 투자전략

전사적 디지털 혁신 가속화: ICT회사로 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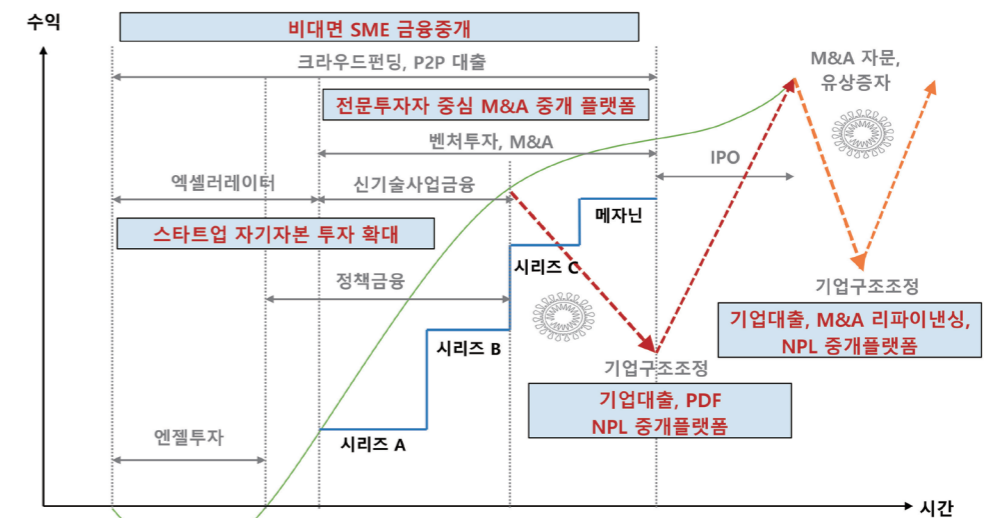
자본시장연구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투자업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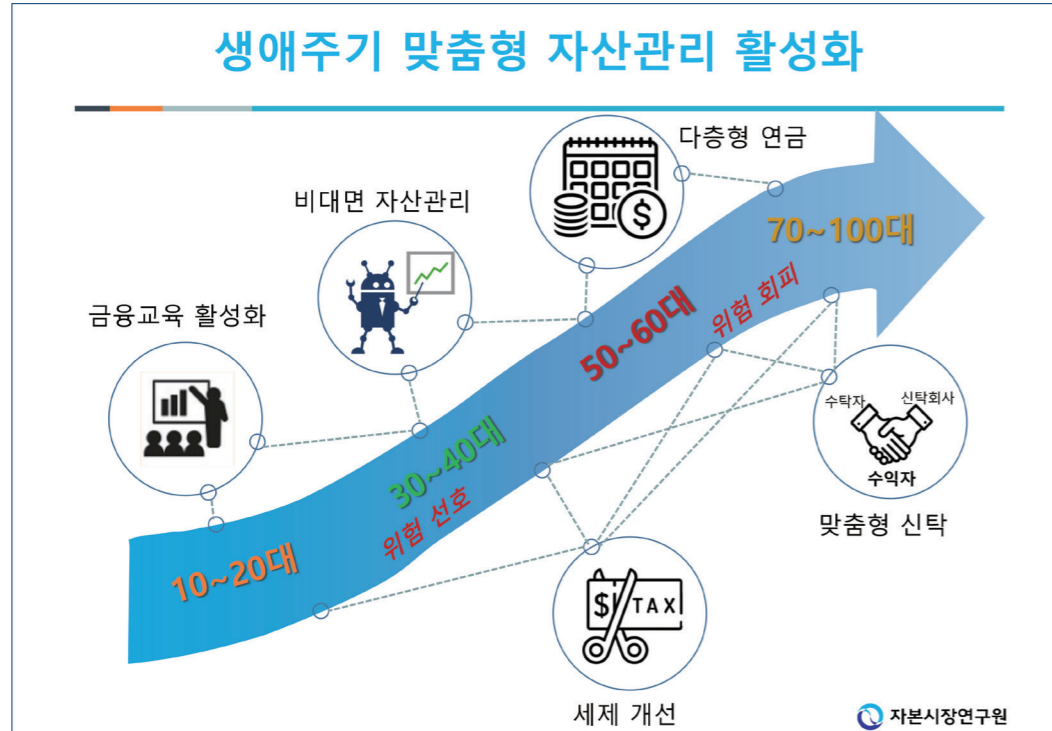
자본시장연구원

기업 생애주기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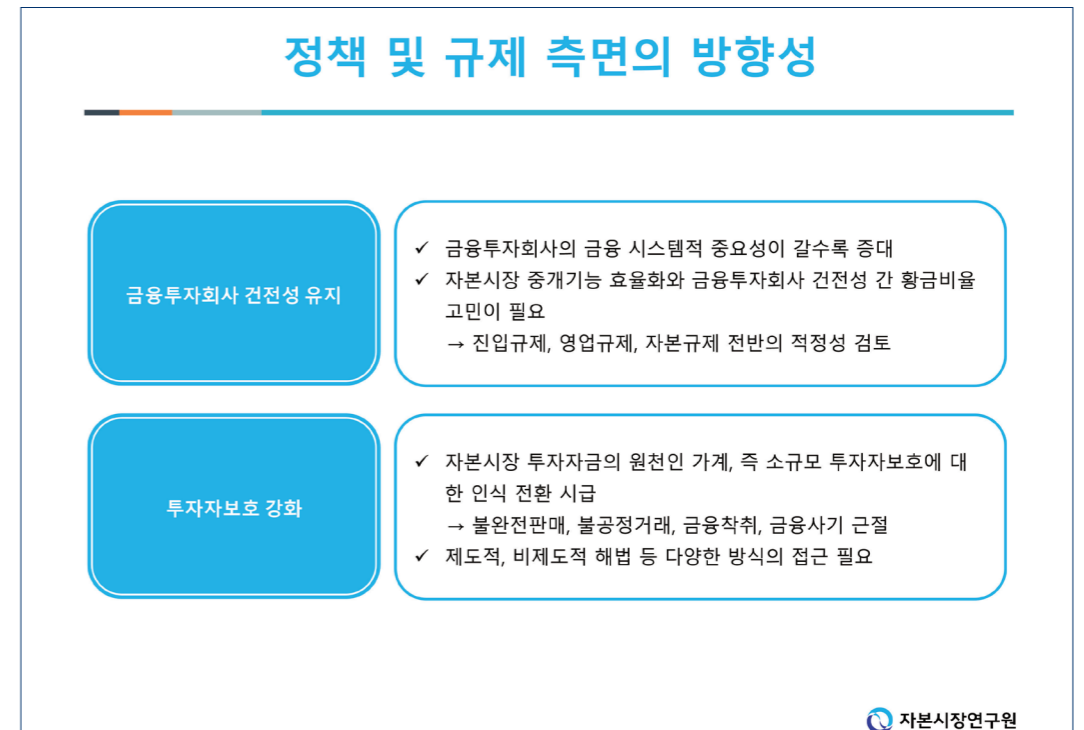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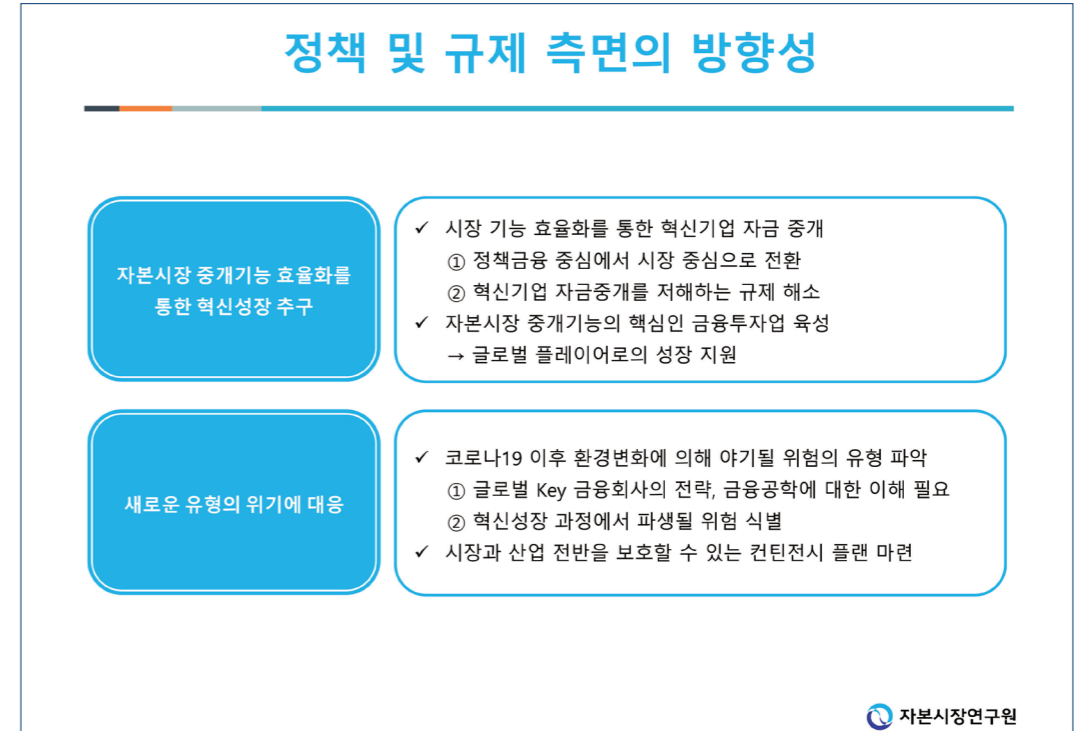


자본시장연구원

글로벌위기 속 투자전략



글로벌위기 속 투자전략



글로벌위기 속 투자전략



MEMO

Blank lined area for taking notes.

강연 | 자본시장과 빅데이터



이동렬 한국신용정보원 CTO

- 한국신용정보원 CTO
- 한국신용정보원 정보분석부장
- 미국 미시건대학교 산업공학 박사

SAFF
SEOUL ASIAN FINANCIAL FORUM

자본시장과 빅데이터

자본시장과 빅데이터

2020 서울아시아금융포럼
한국신용정보원 CTO 이 동렬

서론 - 코로나19와 Digitalization

자본시장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맺음말

자본시장과 빅데이터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 비대면 선호

대면채널보다는 비대면채널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선호하는 경향 증가

- 사회적 거리두기
- Untact 서비스 – 무인화, 자동화
- 온라인 교육, 화상회의, 재택근무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 산업간, 산업내 구조재편 촉발

코로나19의 피해업종과 수혜업종 간, 산업 내 경쟁자 간 실적 차이가 산업구조 재편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음

- 피해업종 : 여행, 항공, 다중밀집시설
- 수혜업종 : 온라인, 제조업
- 동일 산업 내에서도 상품, 서비스, 사업모델에 따라 영향도 상이
- 향후 M&A, 구조조정 증가 예상



자본시장과 빅데이터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 실물경기 침체

글로벌 실물경기의 침체와 회복 지연이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금융부분은 영향을 덜 받고 있는 모습을 보임

- 상품교역 둔화
- 인적교류 위축
- 글로벌 공급망 혼란
- 유동성 증가로 인한 실물과 금융의 분리현상 (Decoupling)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 투자자 행태 변화

초유의 환경변화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이 과거 금융위기 등의 때와는 달리 나타나고 있음

- 동학개미운동
- 원유 ETN 사태



자본시장과 빅데이터

향후 전망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사회, 경제의 정상화 이후에도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사회적, 문화적 변화
 - 스마트워크(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의 증가
 - 소비문화 온라인화(쇼핑, 교육, 엔터테인먼트, ...)
- Digitalization 가속화
 - 비대면 서비스 강화
 - AI를 비롯한 big data의 활용 증가
 - 셀프서비스 증가



서론 - 코로나19와 Digitalization
 자본시장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맷음말

자본시장과 빅데이터

자본시장 가치사슬과 빅데이터 영향도

빅데이터와 AI는 자본시장 가치사슬 전체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자본시장 종사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음

분야별 빅데이터/AI 영향도

	Sales	Trading	Advisory	Research	Trade Processing	Product Mgmt	Client Support	Risk Mgmt	Finance	Compliance	IT
Data Mgmt & Analytics	H	H	M	M	M	M	H	H	M	M	M
AI	M	H	L	M	M	L	H	M	L	M	M

Source: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Europe's Capital Market, 2018



Trading 영역 활용 사례

자동화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거래인은 줄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개발자 수요가 크게 늘고 있음



- 시스템 트레이딩, 알고리즘 트레이딩 증가
 - 미국의 경우, 전체 주식거래의 80%가 기계에 의해 행해짐
- 사례) Goldman Sachs
 - 2000년대 초반 600명의 trader
 - 2015년 2명의 trader,
 - 200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자본시장과 빅데이터

Advisory 영역 활용 사례

로보어드바이저 산업의 급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급성장
 - 2020년 로보어드바이저 관리자산 총액은 1,700조원 상회
-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스타트업 외에 기존 금융업체의마켓세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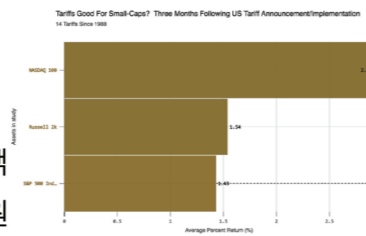
한국신용정보원 Korea Credit Information Service

Research 영역 활용 사례

AI 기반의 조사분석 검색엔진 등장으로 조사분석 소요 시간을 대폭 절감하고 분석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함



- 사례) Kensho - 빅데이터 기반의 조사분석검색엔진
 - 2013년 설립
 - 자연어 질의로 정책변화, 정치적 이벤트 등 다양한 요인과 경제 지표간의 연관성 분석 결과 검색
 - 2018년 S&P Global이 6,000억원 이상 가격으로 합병



한국신용정보원 Korea Credit Information Service

자본시장과 빅데이터

Risk Management 영역 활용 사례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한 관리툴을 제공하는 여러 핀테크 스타트업 등장



- AI와 시각화 등을 바탕으로 다차원의 리스크 분석툴을 제공 중
 - Cyber risk, asset risk, market risk, operational risk 등 분야별 특화된 솔루션



한국신용정보원 Korea Credit Information Service

서론 - 코로나19와 Digitalization
 자본시장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맺음말

자본시장과 빅데이터

자본시장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 요약

빅데이터와 AI는 이미 자본시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중요도는 더 높아질 것임

- 현재 자본시장 가치사슬 전 부분에서 활용
- 장기적으로 활용과 의존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재의 마케팅 툴 지위에서, 경쟁과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로 진화할 것



빅데이터/AI 활용 유의사항

자본시장에서 빅데이터와 AI의 역할이 커지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과 윤리적 이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Input 데이터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
 - 자동화된 환경에서 Input 데이터의 오염은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Noise에 의한 결론의 왜곡 외에도, 의도적으로 AI의 오판을 유도하는 Poisoning Attack도 가능
- AI의 윤리적 이용에 대한 고려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공정성
 - 설명가능성



자본시장과 빅데이터

감사합니다

강연 | 팬데믹시대 자산관리



정인영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

- 비대면 모바일 투자일임서비스 '핀트(Fint)' 출시(2019)
-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설립(2013)
- 엔씨소프트, 한국기업투자, 소프트웨어진흥원, iMBC 등 경력
 - 1990년 말부터 다수 스타트업 M&A 경험, 기술과 금융에 대한 통찰력 있음
- 금융위원회 산하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센터 TF위원
- 국민대 BIT대학원 겸임교수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학사

SAFF
SEOUL ASIAN FINANCIAL FORUM

팬데믹시대 자산관리

SAFF 2020

팬데믹시대 자산관리

- 급등락 시장에서 과학적인 분산 매수 방법 연구 소개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이사 정인영

December.

Fint

2013

국내 최초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업자/
사모자산운용사

2019

국내 최초

비대면 전용
투자일임 **Fint**

2019

국내 최초

미국 모기지 펀드
음원 저작권 펀드

December.

Fint

팬데믹시대 자산관리

대중 고객에게는 부담 없는
고액 자산가에게는 특별한 맞춤형이 가능한

투명한 **신뢰성 있는** **편리한**

금융 투자 서비스



December.

F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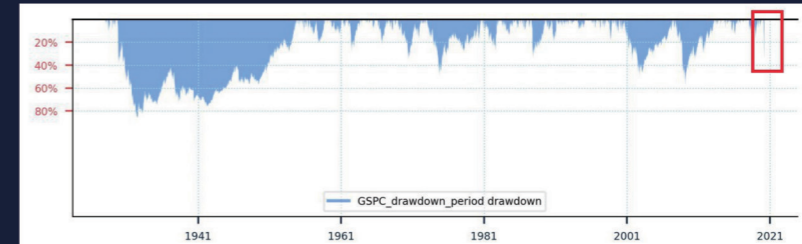
시장 급락은 기회!
어떻게 진입해야 할까요?

December.

Fint

팬데믹시대 자산관리

The Drawdowns



Drawdown Start	Drawdown End	Drawdown Period	Recovery Time	Recovery By	Underwater Period	Drawdown
1929-09-17	1932-06-01	2 years 8 months	1954-09-22	22 years 4 months	25 years	-86.19%
2007-10-10	2009-03-09	1 year 5 months	2013-03-28	4 years 1 month	5 years 6 months	-56.78%
2000-03-27	2002-10-09	2 years 6 months	2007-05-30	4 years 8 months	7 years 2 months	-49.15%
1973-01-12	1974-10-03	1 year 9 months	1980-07-17	5 years 9 months	7 years 6 months	-48.20%
1968-12-02	1970-05-26	1 year 6 months	1972-03-06	1 year 9 months	3 years 3 months	-36.06%
2020-02-20	2020-03-23	1 month				-33.92%
1987-08-26	1987-12-04	3 months	1989-07-26	1 year 8 months	1 year 11 months	-33.51%
1961-12-13	1962-06-26	6 months	1963-09-03	1 year 2 months	1 year 8 months	-27.97%
1980-12-01	1982-08-12	1 year 8 months	1982-11-03	3 months	1 year 11 months	-27.11%
1966-02-10	1966-10-07	8 months	1967-05-04	7 months	1 year 3 months	-22.18%

출처 : 블룸버그, S&P 등 여러 자료 소스를 통해 디셈버엔컴퍼니에서 직접 가공

December.

Fint

Simulation

- MDD (전고점 대비 하락율) 30%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 기준
기술적 분석 진행 (DCA vs. VA)
 - 1929.10.29 (대공황)
 - 1970.05.14 (이자율 상승)
 - 1974.07.05 (오일쇼크)
 - 1987.10.19 (블랙먼데이)
 - 2001.09.17 (닷컴버블/911)
 - 2008.10.06 (금융위기)
 - 2020.03.20 (코로나 19)

December.

Fint

팬데믹시대 자산관리

DCA vs. VA

DCA (dollar cost averaging)

단순 분할 투자

매입 단가는
개별 매입 가격들의 조화 평균

VA (value averaging)

매 시점 목표한 평가금액을 맞춤

n일 매수 시
DCA는 총 매수 원금이 n불
VA는 총 평가 금액이 n불

December. Fint

DCA vs. VA - 진동하는 경우

주가흐름이 **진동**하는 경우 (100에서 110)

- VA (매입단가 102.1) 가 DCA에 비해 유리

주가 진동은 VA에 유리한 시나리오
고점 진입 수량이 계속 줄어들고
저점 진입 수량이 늘어나며 매입단가를 낮춤

많은 경우, DCA에 비해
효과적으로 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음

주가 진동시

기간	DCA 매입주수	VA 매입주수
1	100	100
2	100	100
3	100	100
4	100	100
5	100	100
6	100	100
7	100	100
8	100	100
9	100	100
10	100	100

December. Fint

팬데믹시대 자산관리

DCA vs. VA - 상승 하는 경우

주가흐름이 **상승**하는 경우 (100에서 110)

- DCA가 유리
- VA 단가 105.0 > DCA 단가 104.8

VA는 점점 줄여서 투입하다가,
마지막에 현금이 많이 남아
고가에 많은 매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주가 상승시

기간	DCA 매입주수	VA 매입주수
1	100	100
2	100	100
3	100	100
4	100	100
5	100	100
6	100	100
7	100	100
8	100	100
9	100	100
10	100	100

December. Fint

DCA vs. VA - 하락 하는 경우

주가흐름이 **하락**하는 경우 (110에서 100)

- DCA가 유리
- VA 단가 105.0 > DCA 단가 104.8

VA는 점점 늘려 투입하다가,
마지막에 현금이 모자라
저가에 덜 사는 상황 발생

주가 하락시

기간	DCA 매입주수	VA 매입주수
1	100	100
2	100	100
3	100	100
4	100	100
5	100	100
6	100	100
7	100	100
8	100	100
9	100	100
10	100	100

December. Fint

팬데믹시대 자산관리

DCA vs. VA - Simulation Result

1. VA 를 활용하는 것이 DCA 활용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음
2. 매입기간을 잘 선택하는 문제가 더 중요
 1. 금융위기, 오일쇼크 처럼 충격 지속기간이 길었던 event 들은 매입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
 2. 블랙먼데이처럼 단기 충격의 경우 매입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
 3. 감염병의 nature 상 공포심 / 경계심이 올라갈수록 damage가 축소됨. 금융위기처럼 구조적인 피해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적으며, 시장은 공포심의 정점 이후 다소 빠른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
 4. 코로나 19 관련해서 3달 이내를 매입플랜으로 설정하고, 구조적 damage 추이를 관찰하며 유동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 진행

December.

Fint

감염병의 nature - The exponent (1+ E * p)

If people are sufficiently worried, then there's a lot less to worry about.
But if no one is worried, that's what you should worry.

N_d = Number of cases on a given day
 E = Average number of people someone infected is exposed to each day
 p = Probability of each exposure becoming an infection

$$\Delta N_d = \frac{0.05}{E \cdot p} \cdot N_d \quad (1.05)^{61} \cdot 21,000 = 411,876$$

$$N_{d+1} = N_d + E \cdot p \cdot N_d \quad (1.15)^{61} \cdot 21,000 = 105,873,570$$

$$N_{d+1} = \underbrace{(1 + E \cdot p)}_{1.05} N_d \longrightarrow N_d = (1 + E \cdot p)^d \cdot N_0$$

E는 social distancing 을 잘 하면 떨어지는 값이고, p 는 손을 잘 씻으면 떨어지는 값.
 두 값 모두 공포심과 경계심이 확산될수록 떨어지는 값이며, 공포심이 커질수록 감염병의 위력은 감소
 시장은 공포심을 선반영하고 있고, 질병 추이가 예측이 되면서 반등할 개연성이 있어 이전의 이벤트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제 구조적인 damage 정도가 저점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로 보임

December.

Fint

팬데믹시대 자산관리

AI를 적용하여 VA를 더 개선할 수 있을까?



- VA와 유사하지만, value 타겟을 사전 정의 하지 않고 AI를 통해 판단하게 하여 스케줄이 틀어지는 단점 보완
- 남은 현금, 남은 일자를 바탕으로 최적의 매수 방안을 계산하는 범용 Execution Engine의 학습 방식을 일부 적용하여 학습
- DCA 대비 좋은 성과와, VA 대비 높은 안정성을 보이도록 학습 및 튜닝

December.

Fint

ISAAC SBE vs DCA / VA

Dec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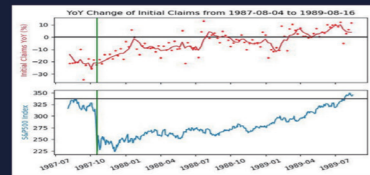
Fint

팬데믹시대 자산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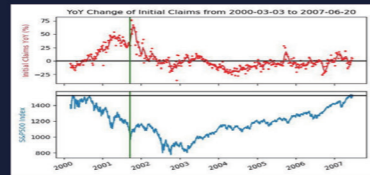
매크로 지표의 추가 분석 - Initial Jobless Claims

- Initial Jobless Claims : 신규 실업지원보험신청 건수의 증가율이 최정점을 찍은 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관측.
- 실제로는 최정점에 도달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없지만, 최정점일 확률을 시가 계산하여, 이에 비례하게 더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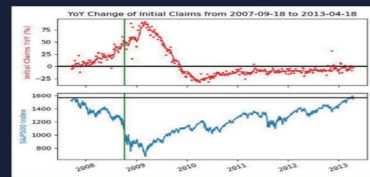
Black Mon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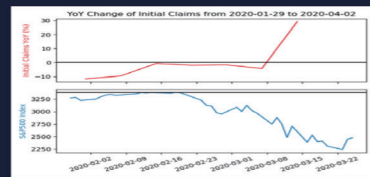
Dot-com Bubble



Financial Crisis



Corona Vir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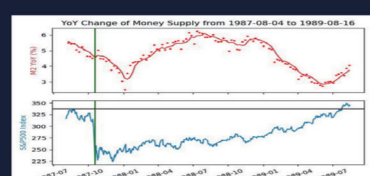
December.

Fint

매크로 지표의 추가 분석 - Money Supply (M2)

- Money Supply (M2) : 통화량의 증가율이 최정점을 찍은 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관측.
- 실제로는 최정점에 도달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없지만, 최정점일 확률을 시가 계산하여, 이에 비례하게 더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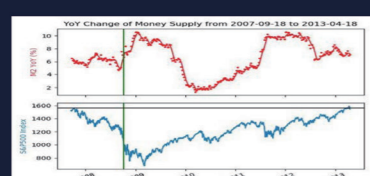
Black Mon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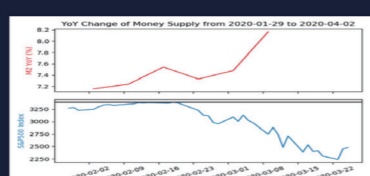
Dot-com Bubble



Financial Crisis



Corona Virus



December.

Fint

팬데믹시대 자산관리

결국 금융 투자도
기술과 플랫폼을 갖춰,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진화하는 것이
코로나19의 시사점이 되기를 희망

December.

Fint

감사합니다



MEMO




석간 종합 경제신문

아시아경제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asiae.co.kr

 | KMH하이텍 |  리더스경제신문 |  뉴스컬처 |  INTEK DIGITAL | NexG

 SKMH신라CC |  Pacific KMH 파주CC |  TGV KMH 떼제베CC



2020 제9회 서울아시아금융포럼
Seoul Asian Financial Forum 2020

아시아경제 

Organized by 에이커스